

# '나홀로' 아닌 '가족 이주' 학교·병원·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에 달렸다



3일 나주 빛가람도시 일대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공사과 가로등 정비 등 막바지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5만명 이상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81조원

### 빛가람도시 공공기관 한 해 예산 나주시의 141배 규모

광주·전남을 살찌게 빛가람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은 81조원 달한다. 빛가람도시가 조성되는 나주시의 연간 예산이 5800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기관의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만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나주시와 비교해 141배가 많고, 예산이 5조6247억원인 전남도의 14.5배, 3조4313억원인 광주시의 23.8배가 많다.

연간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이며, 62조189억원으로 타 이전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전기관 기능별 예산규모는 에너지군이 63조8007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문화예술군이 11조439억원, 농업지원군이 4조6460억원, 정보통신군이 2조262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15개 이전기관별 연간예산은 에너지군인 한국전력이 62조원대, 한전 KPS 1조1077억원, 한전KDN 5264억원, 전력거래소 1482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농업지원군인 한국농어촌공사는 4조1224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18억원, 농림수산기술기획기원 1735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군 2개 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3677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389억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군인 사학연금은 10조3179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450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809억원으로 파악됐다.

국가에 소속된 3개 기관 중 연간 예산이 가장 많은 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로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립전파연구원 556억원, 농수산식품연수원이 1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예산이 1조원 이상인 기관도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사학연금 등 5곳이나 된다.

###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13>

#### 공동혁신도시 ④ 기반시설·정주여건 조성 어디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를 채울 공공기관들의 이전 작업이 신도시 건설을 위한 뼈대를 맞추는 것이라면, 도로와 주택 등 기반 공사는 인구 5만명 이상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살을 붙이는 작업이다.

공공기관이 제 날짜에 이전 작업을 마쳐더라도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지거나 부족하면, 낮에 근무만 하고 밤에는 인근의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소 3만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야 자족도시로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인구가 되는 이주 기관 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은 가장 중요하다.

3일 빛가람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733만4000㎡에 달하는 부지조성 공사는 이미 끝났고, 주요 도로와 가로등, 조정공사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주요 진입도로 중 나주역~빛가람도로(5.39km·1456억원)는 이미 지난해 11월 개통했으며, 가장 문제가 됐던 빛가람도시와 국도 1호선을 잇는

북측도로(0.89km·398억원)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다.

또 빛가람도시 동쪽과 국지도 55호선을 잇는 도로(0.61km·129억원)는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3월 완공 예정이다. 공정률 70%인 신천IC~고동리 도로(0.98km·221억원)도 오는 6월이면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른 기반시설 공사도 대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공급 공사는 이미 완료됐고, 하수도 처리시설(공정률 96%)은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폐기물처리 시설은 나주 신도산단 내에 조성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정보통신망, 전기 등의 공급 시설도 공사를 마쳤다.

이처럼 중요 기반시설 공사는 공공기관의 이주에 맞춰 속속 마무리되고 있지만 병원이나 상점, 식당, 문화체육 시설 등 정주 여건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주와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 덩달아 관련 시설의 입주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다.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5개교, 중

####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는 '착착' 파출소·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은 '지지부진'

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모두 13개교가 들어서야 하지만 올해 우선 4개 학교가 문을 연다. 지원시설인 파출소와 소방서도 예산 마련과 관계 기관 협조가 늦어져 제 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또 병원이나 학원, 은행, 식당, 상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민간분야 건축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주를 마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직원들이 초창기에 어려움이 많이 겪어 이주 직원 350명 중 60여명만 전 가족이 이주했다. 나머지 220여명은 홀로 내려와 주말이면 서울 등지로 떠나가는 식이다.

이 같은 '나홀로 이주'는 비단 빛가람도시만의 일은 아니다. 전국 대부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홀로 이사를 고집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이란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나홀로 이주가 많은 것은 교육 등을 비롯한 정주 여건이 부족하고 문화시설이 빈약하기 때문

이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 인구 유입이 더딘 현상은 아파트 분양 등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 업체가 1226세대를 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했지만 청약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빛가람도시 B4블록 602가구(2월), B2블록 624가구(5월) 등이 새주인을 찾아야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전 기관의 직원이 적고, 주변 지역의 유입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많다는 것도 변수다. 부동산업계에서 따르면 광주는 신원동 첨단2지구 한양수자인리버뷰 1254가구,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A8블록 733가구(1월) 등 첨단2지구에 3235가구 등 총 6622가구가 입주하고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3차 1296가구(5월)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반공사는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고, 이주 기관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주변 편의시설 공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직원도 늘고, 아파트와 주택 시장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광역시지 kroh@kwangju.co.kr

### 민주당, 국회의원직 사퇴 불가 새누리, 현역의원 차출 최소화

## 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직 사퇴 불가 방침을 정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 불가 방침을 정하고 노영래 사무총장이 관련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대표는 3일에도 노 총장에게 관련 방침을 공문으로 만들어 의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선거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

선기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 같은 재보선 부담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여서 이번 지방선거 때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칫 현역을 대거 차출했다가 의원 재보선에서 과반수 의석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당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에서 "과반을 겨우 넘기고 있는데, 현역에도 경쟁력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 차출해내다 보면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며 현역 차출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7월 재보선 부담때문 '기득권 내려놓기 역행' 비난도

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무엇보다 여러 쟁점을 놓고 여당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력 이탈을 막기 위한 차원이고 나아가 의원직 사퇴로 인해 7월 재보선의 판이 커지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의원직 사퇴가 거론되는 현직 국회의원은 줄잡아 6~7명이나 된다. 이 경우 당장 상임위 표결에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또 7월 재보선 규모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을 포함해 1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나며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으로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이 같은 큰 규모의 재보

정치혁신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즉답이 갖고 있는 현재 의원 수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기득권 지키기' 차원의 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직과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두 가지 떡을 양손에 들고 당내 경선에 임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로서 진정성을 의심받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장 당 경선을 준비 중인 한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려면 많은 제한이 있다"며 "특히 '안철수 신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쳐야 하는데 당의 방침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kpark@kwangju.co.kr

## 하나투어

www.HanaTour.com

###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행되세요!

####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3박5일)

<p>[AVPF01-ZA1]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p> <p>HNT 599,000원 ~</p> <p>*'일라버드' 20석한정(앙코르왓+4대특시)</p> <p>●호텔: 골디어나 호텔 또는 동급 무숙</p> <p>●특선: 5가지 특선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p>	<p>[AVPF01-ZA2]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p> <p>HNT 799,000원 ~</p> <p>*'나눔여행' 디얼공동체(전신사자+4대특시)</p> <p>●호텔: 앙코르 워터 호텔 또는 동급 무숙</p> <p>●특선: 6가지 특선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증명서 발급, 전신사자</p>
<p>[AVPF01-ZAA]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p> <p>HNT 999,000원 ~</p> <p>*'360도모험' (한방이사지 + 6대 특시)</p> <p>●호텔: 에리호텔 또는 동급 무숙</p> <p>●특선: 6가지 특선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스카임으로 앙코르 수, 한방이사지</p>	<p>[AVPF01-ZAD]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p> <p>HNT 1,149,000원 ~</p> <p>*'디트림' 캄보디아 4대 특시</p> <p>●호텔: 앙코르워터호텔 또는 동급 무숙</p> <p>●특선: 6가지 특선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스카임으로 앙코르 수, 담배이사지</p>

#### 하나골프

부영CC / 포키트라CC / 앙코르 54홀  
캄보디아 씨엠립 4일/5일

<p>[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399,000원 ~</p> <p>●특선: 상인 1인 룸타를 1개 포함</p> <p>●포함 사항: 그린피, 캐디, 전용 카트, 골프화 대여, 식사 3회, 커피/수프, 렌탈, 기타 개인 경비</p>	<p>[초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749,000원 ~</p> <p>●특선: 전신사자 2인, 상인 1인 룸타를 1개 포함</p> <p>●포함 사항: 그린피, 캐디, 전용 카트, 골프화 대여, 식사 3회, 커피/수프, 렌탈, 기타 개인 경비</p>
---	---

#### 하나무녀를 위한 지역별 BEST NO.1 상품

<p>[ABW103-8B6] 푸켓 6일 반안트리 풀빌라(혼합형)</p> <p>1,500,000원 ~</p> <p>●출발일: 3월 / 토일/월요일</p> <p>●특선: 고급호텔, 방안연관, 아르바다(VIP), 아르바다 식사</p>	<p>[AAW146-TGJ] 코스마이 6일 인피니티 펜트하우스 풀 스위트</p> <p>2,749,000원 ~</p> <p>●출발일: 3-6월 일/월요일(오전출발)</p> <p>●특선: 캐달라 100평형 호텔, 사무이 상류주변, 차를 디스커버리 투어, 밤마사지, 전신사자 2시간</p>
<p>[PPV413-OZ/KEL] 팔라우 6일 로얄리조트</p> <p>1,799,000원 ~</p> <p>●출발일: 2월 / 일요일</p> <p>●특선: 하나관광객 전용이벤트, 팔라우사냥, 물놀이</p>	<p>[BHW201-OZ/KE/HAQ] 하와이 오아후 6일/7일 퀸피올라니</p> <p>1,720,000원 ~</p> <p>●출발일: 3월 / 토일/월요일</p> <p>●특선: 오아후 마일/생일 포함, 원 일명 카트 기사기 포함, 오아후 사냥, 카이퍼링, 카이퍼링 포함</p>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형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용, 여행정보료, 현지관광인정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가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서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 ■관광통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속속: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